

하나님은 내가 이기기를 원하신다. 계 3:14-22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내가 이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본문의 말씀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셨다는 하셨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래, 너는 됐어. 이제 내가 완전히 너의 삶을 너에게 맡길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결코 오늘 우리들에게 이기라고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이긴다는 단어의 의미는 한번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계속 해서 이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수 있는 비밀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든 멤버들은 지금부터 계속 이기시기를 바란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이기시기 바라고, 어떤 시험이 들어도 다 이기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긴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단과, 세상과 싸워 이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도 틀리다고 할수 없지만 과연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수 있겠는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데에는 큰 힘이 들지 않는다. 잘못된 텍스트 하나, '오빠, 뭐해?' 이 하나로 부부사이가 깨지는 것이다. 불신앙, 오해, 의심, 걱정, 이런 것을 우리들의 인생에 살짝 한방울만 떨어뜨려놓으면 우리는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 사단을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 사단과는 싸우지 마시기를 바란다. 정확히는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단은 하나님님이 싸워 이미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때에 이미 사단 권세, 죽음의 권세는 끝이 난 줄로 믿기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으로 싸우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다 이기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되는 것이다.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난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 맞는데, 그 싸움은 사실 나 자신과 싸우는것이다. 왜냐면 나의 결정에 따라서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질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나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버리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것, 정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그렇게 막는다. 복음을 다 알고, 수십년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방해와 싸우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아와 싸워야 한다. 나의 습관과 싸워야 한다. 내가 가진 것들과 싸워야 하고, 나의 목표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땅대의 삶이 될 때, 나의 삶의 방법이 여정이 될 때, 우리는 그때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이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완전한 답을 주셨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어떤 것들은 이미 다 망가져서 도저히 희망이 없어보이기도 한다. 사단은 꼭 그럴 때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계속 더 공격을 한다. 그러나 그 때 꼭 기억해야 할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이긴다고 믿고, 그리스도만 붙잡기 바란다.

그런데 오늘 성경말씀에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영동한 것으로 살아가는 한 교회가 등장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초대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오로지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로는 사데 교회가 있지만 사데 교회는 비록 죽은 교회이기는 했지만 소수의 성도들이 웃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라오디게아교회는 단 한 마디의 칭찬도 없는 책망만 받았다. 분명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왜 너희들은 그렇게 미지근하냐는 것이다. 터키에 가면 파묵칼레라는 유명한 온천관광지가 있다. 이 온천은 탄산온천으로 유명하다. 그 파묵칼레 온천이 있는 곳이 바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라오디게아와 11Km, 약 7마일정도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

발원한 온천수가 11Km 남쪽으로 흘러가면 바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면 처음의 온도가 식어져서 이곳에 도착하면 탄산도 다 날아가고 온도도 떨어져서 온천으로 쓸수 없는 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 물이 미지근해져서 온천으로 쓸수 없는 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쓸모없는 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16Km 동쪽으로 가면 골로새가 있는데, 그곳은 얼음처럼 차가운 우물이 유명한 곳이다. 그 차가운 물도 라오디게아에 오게 되면 그저 미지근한 특징이 없는 물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교회가 받은 책망은 너는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언약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니,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A.D. 17년과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도시들이 파괴 되었을때 로마 황제가 각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돈을 보내주었는데, 라오디게아는 황제의 후원을 거절하였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복구 할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많았던 도시였다. 그런데 사실 돈이 많은 것보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나?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육신적인 부요함 때문에 눈이 먼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그것 밖에 보이지 않으니 아무리 영적인 것이 있다 해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 육신적인 부요한 것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도구였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실망스럽고 더 나아가서 내쳐버리고 싶으셨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다. 그러나 그 책망은 혼내기 위한 책망이 아니요, 그들을 돌이켜 이기게 하고 싶은 사랑의 책망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해주겠다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약속까지 해주셨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내가 권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에게 진정한 왕노릇 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내 이기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수 있을까?

1.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순금은 귀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금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연단하는 과정, 정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금덩이처럼 보이는 광석도 그 자체로 순금이 아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것이 가치를 가진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과정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일 처음에는 캐내어온 광석을 아주 가루로 잘게 부수어 버린 후 물과 화학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금가루가 섞여 있는 가루만 분리해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뜨거운 불로 가열해서 불필요한 성분들을 다 날려버리는 과정을 거쳐야만 순금이 나온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금을 사라고 하셨을까? 가장 가치있는 것을 사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가장 가치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 다 살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절대 살수가 없다. 우리들의 자녀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우정, 사랑, 신뢰, 공휴,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순수한 의미를 다 잃어버린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금으로 모든 물건을 바꿀수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수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불순물과 섞이면 잘못된 복음이 된다. 그래서 마치 예수 믿으면 만병통치가 되는 줄 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만병통치가 아니라 근본문제 해결이다. 근본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만병이 치유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절대 잊으시면 안된다.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오게 되면 갑자기 더워졌다 추워졌다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호르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의 상태를 기준으로 살게 되면 남편 죽어나는 것이다. 창문을 열면 연 것이 잘못이고, 창문을 닫으면 닫은게 잘못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근본이 해결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인생 주인되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다 알고 계신다. 그리스도 하냐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불순물이 내 삶 속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거기에서 사단은 이 불순물을 우리 인생에 던져 놓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신다. 불로 연단해야 할 만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망치도 맞아야 하고, 불에 데어야 할만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불순물이 다 빠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불순물이 빠져 나가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순금은 다른 불순물과 섞이지 않을 만큼 단단한 금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기쁨으로 이겨나가기 원하시는 것이다. 고통주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이 오직 복음으로 이길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어려움에 도전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으로 생각하며 오직 언약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세상에 속지 않고 승리할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

2.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발견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실망을 주었는지를 상상할 수 없다. 가끔 드라마같은데 보면 자식이 자기 부모를 향해서 왜 나를 낳았냐고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자식이 부모를 원망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만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때는 벌거벗은 것이 상관없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벌거벗은 나, 부족한 나만 볼 수밖에 없다. 내가 나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구원일수가 없는 것이다. 나의 문제, 내가 원하는 미래만 바라보면 절대 그리스도가 나의 답일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바보같은 것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능력이 있느냐? 없다. 그렇다면 세상 다른 우상들이 그렇게 해줄수 있느냐? 없다.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워하실까, 얼마나 실망하실까, 생각이 들었다. 이게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다. 흰옷은 어린양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무엇을 사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고 하시는 것이다. 나의 수치와 죄악, 모든 것을 가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라. 그것을 소유해라. 그것을 내것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능력있는 삶을 살수 있다. 원래부터 우리들의 능력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흰옷을 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길을 택하고 그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벌거벗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너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는 벌거벗은 한사람의 육체일 뿐이다. 그러나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떤 일과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줄로 믿는다.

3. 언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오디게아가 부유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언약 때문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부르키아 언약'이라는 유명한 특산물 생산되고 있었는데, 이 약을 사기 위해서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육신의 눈을 고치는 안약을 생산하던 그들이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었다. 그들의 육신적인 부유함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지를 모르고 있었다. 17절 말씀에 곤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라오디게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일수도 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포럼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할수 있다. 나는 이 복음을 만나고 마음이 시원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에 답 났으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난 관뎠어 이렇게 생각할수 있다.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입에만 있으면 문제인 것이다. 정작 분명히 보고 있는데, 영적

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영적인 눈으로 항상 다른 사람 영적 문제만 보는 것이다. 내 영적 문제를 봐야 되고, 정말 냉철하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내 영적 문제라서 못 본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표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우리는 과연 그 복음을 누리고 사용하고 증인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돌출 하나이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내 삶에 실제로 사용할만큼 완전히 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내 눈을 바꿀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 너의 벌거벗은 육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나를 바라봐라. 너의 마음에 차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는 대신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를 바라봐라.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대신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바라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을 내 눈에 발라야 한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한층밖에 되지 않는 그 재력으로 세상을 것을 사서 내것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사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니가 그렇게 부유하다면, 그 부유함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스도의 흰옷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돈이 무엇인가?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항상 교육시키는 것은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exchange하는 것임을 늘 말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exchange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는다.

4. 결론: 개인화

결론은 개인화이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킨다. 그런데 그러면 뭐하나?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먹어야 병이 낫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 병이 낫지 않는다. 지난 주에 핵심 메시지에서 개인화라는 단어가 나왔다. 교회가 이제 선교를 새롭게 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개인화인가? 개인화는 내가 믿는 복음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체험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의 음성을 듣고 너의 문을 열어주겠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구나" 우리는 여기서 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삶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것인가? 19절, 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그것을 너는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기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복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시기 바란다. 그리고 내 안의 주인된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란다.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믿을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절망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지 불신자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는 것이다. 내가 이 주님을 지금 나의 문제 한 가운데 초청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 안에 오셔서 그 문제의 주인되어주시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정복하는 자가 될 줄로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신다. 사단의 틀을 깨서 부수고 나의 한계를 정복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증인을 원하고 그런 증인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기 원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소원 앞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겠노라고, 오직 복음으로 살겠노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